

오피니언

光日春秋

정용덕



20세기 말 이래 지난 사반세기 가까운 기간에 서구의 선진국들이 실험을 기울여 추진해 온 정부혁신의 기본 방향은 국정 운영에서 관료주의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집행 업무를 가능한 지방행정조직이나 책임운영기관 그리고 민간조직 등에 의해 경쟁과 자율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되, 사후에 그 성과를 평가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병행된다.

탈(脫)관료주의가 대세라면

불가피하게 정부직 집행까지도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정책결정 업무와 정책집행 업무를 분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내용적으로 합리적일 것과 절차적으로 법에 근거할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관료제 행정의 제도화를 통해 서구 나라들은 국가간에 발생한 전쟁에서 국내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에 이르기까지 20세기에 발생한 크고 작은 현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그렇기는 해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앞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남의 일처럼 바라보고만 있다가는, 마치 전세기에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비서구 국가들의 발전 속도는 그만큼 또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非)서구 국가들의 경우에는 성과주의 행정의 구현을 어렵게 만드는 행정문화적 장애 요인까지 존재한다. 성과관리가 성공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사후 평가와 그에 따른 객관적인 상벌체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행정에서 온정주의가 상행하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는 해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앞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남의 일처럼 바라보고만 있다가는, 마치 전세기에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비서구 국가들의 발전 속도는 그만큼 또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위기의 '광주 교육'...비리에 학력저하까지

광주 교육계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광주시교육청과 일부 일선 학교가 각종 비리혐의로 대대적인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고교 가운데 올해 서울대에 10명 이상 합격시킨 학교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대의 '2006학년도 입학생 출신 지역, 고교별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10명 이상 합격자를 배출한 고교는 62개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광주지역 고교는 2~3개교에 이르는 부산, 대전, 대구지역과도 크게 대비되는 것으로 광주지역의 학력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그토록 공립학교를 꺼리는지 알만하다.

물론 서울대 합격자 수가 학력을 측정하는 절대 요소가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 최고 명문대로 손꼽히는 서울대에 가장 우수한 학생이 몰린다는 것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인재를 법대로, 법제를 돈재로 저하시키는 교육환경에서는 광주의 미래는 암담하다.

특히 광주지역의 공립과 사립학교 간의 두드러진 실력차도 문제다. 전통 명문 공립학교인 광주제일고, 광주고, 전남여고의 서울대 합격자는 경우 1~2명에 불과했다.

창업환경 116위 경제 앞날이 걱정이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세계 175개국 중 지난해와 같은 23위에 그쳤다. 특히 창업환경은 116위로 11년째가 떨어졌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가 6일 발표한 조사 결과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해왔다.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은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은 정책이 겹겹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는 58위에서 60위로, 국외 무역은 26위에서 28위로 밀려났다.

특히 창업환경은 12년째를 거쳐야 하는데다 소요기간은 22일, 비용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5.2%에 이르렀다. 창업환경 1위에 오른 캐나다의 2단계와 소요기간 3일, 비용 1인당 GNI의 0.9%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 창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가 확연히 드러난다.

기고



김지수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졸졸거리는 물이 어처구니없는 갈증을 매일같이 되풀이해서 느끼고 있다. 그 원인이 뭘까? 운양 주공3단지 5층 아파트 꼭대기 층으로 이사온 지 5년이 지나도록, 여지껏 수도를 때문에 성가시거나 신경 쓴 적이 없었는데, 올 봄 1단지 재개발공사 완료로 대규모 입주하기 시작되니 수압하강 현상이 눈에 띈 정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완공되면 상수도 감압현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고 주택공급이 남아도는 지방에서 분양도 안 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계속 조성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될 뿐만 아니라, 주도면밀한 부대시설의 확충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단지만 조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난감발의 의혹도 크게 걱정이다.

재개발 단지, 공익시설도 확충하라

상 물탱크에 다량의 물을 계속 뿜어 올리는 탓일까? 기존상수도 시설의 수압으로는 5층까지 물이 겨우 올라오는 것마저 감지되지 않을 형편이다. 대규모 단지를 조성해 엄청난 개발이익을 쟁겼을 시공회사는, 도대체 단지 내 상수도시설을 위해 아무런 특별시공이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단 말인가?

이 완공되면 상수도 감압현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고 주택공급이 남아도는 지방에서 분양도 안 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계속 조성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될 뿐만 아니라, 주도면밀한 부대시설의 확충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단지만 조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난감발의 의혹도 크게 걱정이다.

수도권만 사용가능한 할인쿠폰 왜 보내나

집이나 직장으로 배달되는 신용카드나 이동통신사 요금청구서에 각종 이벤트나 할인쿠폰, 안내문 등이 함께 들어있는데, 대부분의 쿠폰 사용처가 서울지역으로 한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

카드나 휴대폰 사용은 어느 곳에서나 가능한데 정작 일부 고객들에게만 화려한 이벤트와 할인 혜택을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기고



유순남

2005년 12월 말 현재 광주시의 공동주택 비율은 70.2%라고 한다. 앞으로 공동주택의 점유율은 더욱 높아져 갈 것으로 예상돼 얼마 후엔 아파트 입주자들의 행복이 곧 국민의 행복이 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공금으로 노래방값 내는 입주자회

로 인하여 주민들의 분쟁에 관한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 최근 광주 서구의 모 아파트에서 제기한 민원의 경우 잡수입과 운영비의 용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혼용하여 사용했다. 또 입주주민의 공익과는 거리가 먼 곳에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지출내역서에 동 대표들이 회식 후 2차로 간 노래방 '부킹비'까지 지출했다.

현안과, 하자보수 등에 관한 특별한 소양을 갖추지 못한 대표들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대부분의 단지가 봉사 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나서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나서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낼 수는 없는 것이다.

할인점 사용한 카드 제자리에 놓을 줄 알아야

얼마 전 대형 할인점에 갔는데 일부 손님들이 손수레(카트)에서 물건을 옮겨 실은 뒤 그대로 세워놓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른 차량 운전자가 고스란히 옮겨 놓아야 한다.

장과 임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지만 그 참여도가 저조했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無等鼓

일확천금을 뜻하는 대박의 어원은 여러 의견이 있으나 큰배(大船)라는 말이 유력하다. 옛날 사람들에게 풍어로 만선이 되거나 진귀한 물건을 한 배 가득 싣고 항구에 들어서는 것이야 말로 황제의 상징이었다.

대박(?) 인생



'재산이 없으면 근심도 없다'는 속담은 현대인들에게 별다른 위안이 되지 못한다. 걱정과 시름에 시달리더라도 재물이 많기를 바라는 것이 요즘 세태다. 대박하면 로또 복권을 빼놓을 수 없다. 로또는 45개의 숫자 중 6개를 맞추는 숫자놀이이다. 이 놀이는 1515년 이탈리아 제노아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당시 제노아시는 시 대표를 뽑을 때 6명의 후보자를 놓고 그 중 1명을 제비뽑기로 선택했다. 이에 착안해 사람을 숫자로 바꾼 것이 로또의 시초라는 것이다.

복권사상 초유의 대박이 터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2일 실시됐던 제 196회차 로또 추첨에서 1등 2명이 되거나 진귀한 물건을 한 배 가득 싣고 항구에 들어서는 것이야 말로 황제의 상징이었다.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